

# 광주 고용률 하락폭 ‘전국 최고’…지역 ‘고용한파’

## 호남통계청, 광주·전남 고용동향

취업자 2만명↓…여성 고용률 급감  
광주 15~64세 고용률 하락폭 ‘1위’  
전남 남성 고용 늘어…실업률 회복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취업자 수가 2만명 넘게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주요 고용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은 여성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해 전체 고용률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으며, 광주와 전남 모두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줄고 임시·일용직은 늘어나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했다. 다만 전남의 경우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남성 중심의 고용 회복이 이뤄지며 실업률은 일부 회복됐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15세이상 취업자는

77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1.9%) 감소했다.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했으며 성별로 보면 여자는 52.4%로 전년동월대비 2.0%p, 남자는 68.8%로 0.1%p 하락했다. 광주지역 여성 고용률 하락 폭은 전국에서 전라북도(-2.4%p) 다음으로 가장 컸다.

15~64세(OECD비교 기준) 고용률은 65.4%로 전년 동월 대비 1.3%p 떨어지며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도(-1.1%p), 서울특별시(-1.0%p)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고용 현황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5만2000명이 늘어난 반면 청년층(15~29세)은 7만4000명이 줄며 대조를 이뤘다.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을 보면 건설업(3000명, 3.9%)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농림어업(-5000명, -23.0%), 광공업(-

5000명, -4.6%),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00명, -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00명, -1.1%)에서 고루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5000명(19.1%), 임시근로자는 2000명(1.7%) 각각 늘었으나 상용근로자는 7000명(-1.6%) 줄어드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했다.

근로시간 측면에서도 우려가 따른다. 36시간이상 취업자는 59만2000명으로 1만1000명(-1.8%),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7만3000명으로 6000명(-3.1%) 모두 감소했다. 고물가 및 경기침체 여파로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2000명(-7.8%), 무급가족종사자는 3000명(-15.2%) 각각 감소하면서 자영업 기반의 고용지표도 악화됐다.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3.8%

로 전년동월대비 1.0%p, 여자는 3.3%로 0.8%p 각각 상승했다.

전남지역 15세이상 취업자는 10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0.8%) 감소했다.

고용률은 66.4%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으며, 남자는 73.4%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한 반면 여자는 59.1%로 2.0%p 하락했다. 여성 고용률 하락폭은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청년층 취업자 수가 고령층을 넘어섰다. 50~59세(-3만7000명), 60세 이상(-1만3000명)은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15~29세(7만5000명), 20~29세(6만5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을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7000명, 4.1%), 광공업(6000명, 6.0%), 건설업(3000명, 3.4%),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00명,

2.7%)에서 고루 증가했으나, 농림어업(-2만명, -9.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000명, -1.7%)에서 크게 줄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전남지역 역시 광주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만3000명(6.7%) 증가했으나, 상용근로자는 2만3000명(-5.6%) 감소하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36시간미만 취업자는 30만5000명으로 5000명(1.6%) 증가한 반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68만9000명으로 2만명(-2.8%)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3000명(4.0%)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는 1000명(-0.4%) 소폭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3%로 전년동월대비 0.4%p, 여자는 1.7%로 0.3%p 각각 하락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광주·전남 경제계,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플랫폼’ 발족

### 18개 중·소상공인 협회 참여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등 앞장”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분부는 지난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8개 광주전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회와 단체가 참여하는 ‘우리지역 경제살리기, 정책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리지역 경제살리기, 정책플랫폼’은 광주전남 경제계가 합심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어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됐다.

발대식에는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박병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 회장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 회장 △전상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 회장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박정선 전라남도 소상공인연

합회장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송기현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장 △김현수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회장 △고수경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승재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장 △한승주 전라남도 상인연합회장 등 12개 광주전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회와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나주몽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 ‘지역경제현황과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나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청년층 유출로 소멸 위기인 지역의 현실을 설명했으며 노동생산성 저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지역 산업 생태계의 약점을 꼬집었다. 또 기업 네트워크 부족으로 산업간 연계 구조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이번 발대한 정책플랫폼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요구 수렴 허브 △신산업 발굴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 규제 △정책 개선 및 반영 통로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각 업계계를 대표하고 있는 협회와 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분야의 작은 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며 “정책플랫폼을 통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우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 정책플랫폼이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롯데백 광주점, 성년의날 ‘향수’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다니엘 트루스’ 매장에서는 성년의 날(5월 19일)을 앞두고 대표 선물인 향수 상품에 대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향수 1개 구매 시 15%, 2개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비롯해 구매 금액대별 상품 추가 증정 이벤트도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비비앙’ 매장도 일부 향수 제품에 대해 최대 4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외에도 코스메틱 브랜드별로 향수 상품에 대해 특가 혜택, 기획세트 구성 등 성년을 축하하는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소진공,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상생 프로젝트’ 추진

### 롯데웰푸드와 상품 개발 등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23일까지 롯데웰푸드와 함께 ‘2025 백년가게·백년소공인X롯데웰푸드 상생 프로젝트’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진공과 롯데웰푸드가 지난 3월에 맺은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백년가게·소공인의 오랜 경험과 비법에 롯데웰푸드의 식품 제조 기술력을 접목시켜, 공동 상표 및 상품 개발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백년가게(음식점업을 하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공인), 백년소공인(식품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된 소공인)으로, △가정간편식(HMR),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밀키트) 등 공동 제품 개발을 위한 조리법 제

공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납품 제안 등 롯데웰푸드의 사업 영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업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참여 신청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24(www.sbiz.kr), 롯데웰푸드 누리집(www.lottewellfood.com)와 인스타그램(@lottewellfoo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마감 이후 사업자 평가 및 참여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백년소상공인과 롯데웰푸드가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백년가게의 ‘우수메뉴’는 롯데웰푸드 ‘식사이론(Theory of SICSA)’ 브랜드와 접목해 상품화할 계획이다. 백년소공인의 경우 협업 방식에 따라 상품 매입 등으로 계약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나다운 기자

## 광주인자위, 지역 인력양성기관 세미나 성료

### 가전산업 동향 공유·건설링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 직업훈련기관을 포함한 인력양성기관들을 대상으로 ‘2025년 광주지역 인력양성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등 광주지역 직업훈련기관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이정기 단장의 ‘광주 가전산업 동향과 인력양성전략’ 특강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베스트 훈련기관 운영사례 건설링’을 제공해 인력양성기관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후형 사무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광주인자위는 앞으로도 지역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013년 출범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매년 지역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률을 제고하는 광주지역 인력양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문의는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62-350-5825~8)로 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 광주경총, 16일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중국 전문가 조평규 박사를 초청해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을 주제로 제1685회 금요조찬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평규 박사는 현재 한중기업연합회 상임대표로 중국 연달그룹 특별고문, 장보

고 글로벌재단 부이사장, 한반도선지화재단 이사, 중국엔다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국을 알지 못하면 중국을 넘을 수 없다’ 등 저서를 발간했고 KBS의 글로벌 성공시대와 아리랑TV 등 방송에 다수 출연했다.

이번 포럼은 △중국의 시장을 한국시장

으로 인식해야 △2025년 중국 경제 방향 △미중 관세 전쟁 △2025년 중국 자본시장 전망 △중국시장은 프로들의 전쟁터 △중국으로 왜 가야하는가 △중소기업 중국진출 △중국 대도시 진출 전략 등의 순으로 강연한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